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캠팔라서 복음 전도자 피살... 복음 집회 후 귀가 중 공격당해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캠팔라 인근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전도자가 괴한들의 습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지가 최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전도자 알프레드 키텡가(Alfred Kitenga)는 지난 4월 9일 밤 9시 30분경 와키소 지구 카왈라 지역 북부 우회도로에서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그는 아내 안나 그레이스 나비리예와 함께 캠팔라 나몽구나 지역에서 열린 복음 집회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나비리예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를 자처한 남성 4명이 접근해 자신들을 집회에 참석한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며 무료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부부는 이를 믿고 이동에 나섰지만, 이동 중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을 이유로 우회 경로를 제안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한 운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계속 통화를 이어가자 나비리예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로 3명의 남성이 합류했다. 곧이어 이들은 돌변해 부부를 공격했으며, 키텡가는 심한 폭행을 당한 뒤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나비리예는 공격 이후 납치됐다가 집 근처에 버려져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교회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키텡가의 시신을 발견했고, 경찰은 이를 수습해 부검을 진행 중이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던 사역자를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

현재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용의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 이후 특히 야간 전도 활동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교회는 사역자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우간다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 사례가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출처: 기도24:365본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

하나님,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간다에 수많은 예수생명의 열매를 맺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반복되는 박해의 소식 앞에서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소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나비리예 자매님과 함께 하사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실제 된 천국 소망으로 붙드시고, 우간다에 주의 나라가 담대히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유엔, 아이티 치안 붕괴에 다국적군 5,500명 투입

갱단 폭력으로 치안이 붕괴된 아이티에 올해 말까지 유엔이 지원하는 5,500명의 다국적군과 경찰이 투입된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카를로스 루이스 마시와 유엔 사무총장 아이티 특별대표는 차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 병력이 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배치되며 연말까지 전원 투입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티 유엔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아이티에서 2,400명이 사망했고, 이 중 1,300명 이상은 갱단 용의자이며 최소 158명의 민간인도 사망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는 9,000명을 넘었으며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7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까지 갱단 폭력으로 약 145만 명이 집을 떠났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아동이다.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갱단 세력이 급속히 확장해 수도의 70% 이상을 장악했으며 납치, 약탈, 성폭행 등을 일삼으며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이티는 현재까지 대통령 부재 상태이며 올해 8월 예정됐던 대선과 총선은 또다시 연기됐다. 아이티는 지난 10년간 갱단 출몰과 정치적 혼란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다. 아이티 정부는 올해 말 대선을 실시하고, 필요시 내년 초 결선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새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벼들 같이 할 것이라(이사야 44:2-4)

하나님, 아이티의 영혼들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그들을 도우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 드립니다. 아이티를 위해 동원될 유엔 다국적군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증인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들이 겸손히 주를 의지하여 아이티 국민들을 섬기게 하소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 오랜 시간 갱단의 폭력으로 고통하는 아이티의 영혼들의 상한 심령이 시냇가의 벼들 같이 다시 솟아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땅과 같은 아이티가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나라 되게 하소서.

▲ 방글라데시, 낙뢰로 14명 사망... 농민·야외 노동자 피해 집중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계절성 폭풍우로 인한 낙뢰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숨졌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6일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벼락이 떨어지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0살 소년은 집 밖 도로에 다른 2명과 함께 서 있다가 벼락에 맞아 모두 현장에서 즉사했다. 또 결혼한 지 8일 된 22살 농장 노동자가 귀가 중 길에서 벼락으로 사망했다. 현지 당국은 희생자 대부분이 들판에서 농사일하던 농민이나 야외에 있던 노동자들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여러 명이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일부는 중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우기 이전인 4-6월 사이 낙뢰 사고가 빈번한 국가로 꼽힌다. 앞서 2016년에는 하루 82명이 숨지는 등 5월 한 달 동안 200명 이상이 숨지자 정부는 낙뢰를 자연재해로 선포했다. 2024년에는 2-9월 8개월 동안 총 297명이 낙뢰로 사망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사편 39:4,7)

하나님, 갑작스러운 낙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들의 상한 마음을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십시오. 매년 우기때마다 발생하는 자연 재해 앞에 어찌할 수 없는 방글라데시 영혼들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 땅의 교회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참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구원자를 찾는 이들이 복음 앞에 나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땅의 영혼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주의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미사일이 날아드는 전쟁 속에서도... 중동에서 이어지는 어린이 선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 어린이 선교 단체인 어린이전도협회(CEF)가 위험 속에서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0년 이상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이 단체는 현재 위기 속에서 사역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CEF 중동 디렉터 샘 레조이는 최근 인터뷰에서 레바논 현지 상황을 전하며 “폭탄이 집 근처에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어린이가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중 약 40%가 중동에 있다”며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겠느냐는 질문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EF는 ‘굿 뉴스 클럽’과 온라인 사역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기독교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다. 레조이는 “전쟁은 최근의 일이지만, 현지 사역자들은 오랜 기간 박해와 반대에 직면해 왔다”며 “사회적 배척은 물론 개인적 공격, 공개적으로 신앙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영향은 깊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백만 명이 머무는 난민 캠프에서도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한 11세 소년이 가족이 눈앞에서 총격을 당한 뒤 할아버지와 함께 난민 캠프로 피신했고, CEF 사역자들이 그를 도와 복음을 전하며 심리적 치유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상황은 매우 긴박하다. 한 현지 사역자는 “매시간 사이렌과 폭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지하실에 머물면서도 다음 주 어린이 사역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레조이는 “미사일이 날아드는 상황에서도 사역을 준비하는 헌신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과 관련된 사역자 역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 난민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 머물고 있는 한 지도자는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이란이 속히 자유롭게 되어 다시 돌아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려는 이들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으며, 현지 사역자들은 이를 위해 기도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출처: CBN 뉴스).

그러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로마서 10:14-15)

하나님,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폭탄이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위험뿐 아니라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아이들을 보살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를 축복하사 주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전쟁의 소리보다 더 크게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도록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부르짖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온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 선교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나이지리아, 무장 괴한 총격으로 29명 사망... 같은 날 보육원 습격에 아동 23명 납치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무장 괴한 공격으로 주민 29명이 숨졌고, 같은 날 중북부에서는 무허가 보육원이 습격당해 어린이 23명이 납치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28일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무장 괴한들은 지난 26일 아다마와주 구야쿠 마을에 진입해 축구장에 모인 청년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도 희생됐으며, 교회와 주택, 오토바이 등에 불을 질렀다. 아이시스(ISIS,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는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는 2009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보코하람과 그 분파인 ISWAP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4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200만 명이 피란했다.

같은 날 중북부 코기주 로코자 마을에서는 무장 괴한들이 보육원을 습격해 어린이 23명을 납치했다. 당국은 이 중 15명을 구출했으나 8명은 아직 찾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몸값을 노린 납치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중북부 니제르주의 기숙학교에서 30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납치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하나님, 나라 이곳 저곳을 큰 혼란에 빠뜨려 이익을 얻으려는 무장괴한들을 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납치되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아이들을 붙들어 주사 속히 구출되게 하소서. 주님, 무장단체들에 의한 폭력으로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이지리아 영혼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그들의 심령을 십자가 복음으로 굳세게 하시는 주로 인해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는 나이지리아 되게 하소서.

▲ 유엔여성기구 “남수단 피란민 60%가 여성·소녀”... 폭력·기아·의료 붕괴 경고

올해 들어 남수단에서 발생한 국내 실향민 약 37만 5,825명 가운데 59.5%인 22만 3,641명이 여성과 소녀라고 밝히며, 시간당 평균 104명이 집을 떠나고 있다고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경고했다. 가장 큰 피해는 동부 종글레이주에 집중됐으며, 이 지역에서만 여성·소녀 약 17만 4,197명이 피란했고, 일부는 학살과 표적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종글레이주의 의료시설 파괴와 약탈로 여성들이 기본 의료 지원 없이 출산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산모 사망률을 기록하는 남수단에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엔여성기구는 올해 남수단에서 500만 명의 여성·소녀가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이 가운데 250만 명은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서비스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여성과 소녀들이 야생식물로 연명하거나 며칠씩 굶고 있으며, 물과 장작을 구하러 나서는 과정에서 성폭력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시편 5:11-12)

하나님, 독립 이후에도 권력 다툼과 부족 간의 갈등으로 민병대의 습격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특히 큰 위험에 노출된 여성과 소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사 어려움 중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남수단의 실향민들이 고난 중에 호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니라”

미국, 유엔서 ‘젠더=남녀’ 첫 공식 제안... EU 반대로 표결 무산



제7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이 ‘젠더(gender)’를 “남성과 여성”으로 명확히 한정 정의하려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으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반대로 표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렸으며, 해당 초안은 1995년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사용된 정의, 즉 젠더를 두 개의 생물학적 성과 연관된 개념으로 이해했던 기준을 다시 적용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는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젠더를 공식적으로 정의하려 한 시도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 대표단은 최근 유엔 문서에서 젠더 용어가 점차 확장되면서 회원국 간 명시적 합의 없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일부 국가와 단체들은 이번 초안 제출을 수십 년 만의 가장 큰 외교적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젠더 개념의 확장에 우려를 표명해 온 남반구 국가들 역시, 용어가 불명확할 경우 국제 협상은 물론 자국 정책 적용 과정에서도 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그러나 벨기에가 EU 26개 회원국을 대표해 ‘무행동(no action)’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결의안은 표결 절차로 넘어가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됐다. 이는 합의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CSW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

비록 표결은 무산됐지만, 초안이 공식 제출된 것 자체가 오래된 금기를 깨고 젠더 정의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들은 향후 회기에서 일부 국가들이 베이징 행동강령의 정의를 다시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EU는 회의 기간 동안 낙태를 인권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하거나 젠더 이념에 비판적인 보수 성향 단체들을 향해 ‘극우 이데올로기’, ‘반권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럽의회 여성권리·성평등위원회(FEMM) 위원장 리나 갈베스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권리 포럼이 극우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니라(마가 복음 10:5-6)

하나님,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안으로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경에 밝히 드러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덮으려 하는 사탄의 모든 간계를 파하여 주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성혁명의 물결 앞에 주의 몸 된 교회가 복음과 기도로 더욱 깨어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엄 앞에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창조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수교회가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스리랑카, 불교 승려·수행자 22명, 대마 110kg 밀반입 적발

스리랑카에서 불교 승려들이 연루된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이 적발돼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CNN에 따르면, 승려 22명은 수도 콜롬보의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에서 약 345만 달러(약 51억 원) 상당, 총 110kg이 넘는 대마초를 밀반입하려다 체포됐다. 이는 현지에서 적발된 관련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들은 태국에서 귀국하는 과정에서 각각 5kg 이상의 대마초가 담긴 여행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가방 바닥을 이중 구조로 특수 개조해 마약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가방에는 과자나 학용품 등을 함께 넣어 위장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경찰은 사전에 입수한 제보를 토대로 공항에서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밀수를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승려 1명이 추가로 체포됐으며, 그는 동행한 승려들에게 해당 물품이 '기부품'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이들 다수는 정식 고위 승려가 아닌 젊은 수행자들로, 태국 방문 비용 역시 외부 후원자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건은 네곰보 치안판사 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피의자들은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스리랑카 경찰 마약수사국은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 범행이 아닌 조직적 범죄와 연계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지 마약 유통망 및 배후 세력과의 관련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또한 불교계 내부에서도 “종교를 악용한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출처: 기도24:365본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사편 141:4,9)

하나님, 불교의 젊은 수행자들에게 엄청난 양의 마약을 기부품으로 속여 밀수하려고 한 승려를 책망하사 죄를 회개케 하옵소서. 스리랑카의 영혼들을 보호하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멸망에 이르도록 놓은 사탄의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기에 더욱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겠습니다. 미혹과 탐욕에 종노릇하며 범죄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 주 앞에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 스웨덴, SNS ‘살인 청부 광고’ 1시간 내 삭제 의무화 추진

스웨덴 정부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되는 범죄 조직의 ‘살인 청부 광고’를 1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스1이 AF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범죄 조직들은 틱톡, 스냅챗 등에서 살인 등 폭력 범죄를 실행할 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5세 미만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스웨덴 민주당 소속 폰투스 안데르손 가르프발 의원은 “살인 청부가 공개적으로 SNS에 게시되고 있으며, 범행에 동원되는 청소년들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7월 15일부터 해당 콘텐츠를 제때 삭제하지 않은 플랫폼에는 최대 500만 크로나(약 8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최근 10년간 갱단 간 충돌과 마약 시장을 둘러싼 폭력 범죄가 급증했으며, 정부는 형사 책임 연령을 만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너희 행위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사편 119:110,115-116)

하나님, 살인 청부 광고가 SNS에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는 참담한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려는 범죄조직을 엄히 꾸짖어 주셔서 스웨덴의 다음세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 땅의 다음세대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스웨덴의 청소년들이 변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으로 무장되어 부끄러울 것이 없이 담대한 주의 군사로 전진하게 하옵소서.